

肝癌의 症狀

나즈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호랑이가 나오지나 않을까 겁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미친 사람일 것이지만, 태백산준령 깊은 골자기를 헤매며 흑시 멧돼지가 나오지나 않을까 겁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 거울에 출고 땀이라고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시원치 않은 사람이겠지, 한국에 태어나서 성장하여 장년에 이른 사람이 간경화나 간암에 한 두번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봤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중에 간질환으로 사망하였거나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괜찮은가?" 하고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있을 만한 것과 없을 만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질병 환경상 간암에 걸릴만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인에서의 간암이 3대암중에 하나라면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과 같이 본인의 경각심에 따라 얼마든지 조기발견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임상의학이 발달된 때이다.

증상(症狀)이란 무엇인가?
증상이란 인체에 나타난 주관적 이상감각이나 객관적 이상현상의 총체이다. 수백수천가지 질병은 물론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내 보이지만, 질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리적 과정에서도 이상증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많은 증상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로 다른 많은 질병에서 공통 증상이란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면 한다.

어떤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무엇 때문인지를 연역해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진단과정이라면 그 순서상, 질병진단은 먼저 증상들을 알아내어 서로 관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에는 아직 아무런 증상도 없을 때 질병을 예견하고 조기진단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모든 질병은 언젠가는 증상을 나타내 보인다. 암은 암아닌 것과 조금 다르네 간암은 간암대로 조금 또 다른 증상들을 나타내 보인다.

암의 공통증상
암(癌)이란 머리 정상에서 발끝 어디서나 생길 수 있다. 어

분은 체단백질(근육)의 위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합병증을 끌어드릴 수 있게 된다.

4. 혈액학적 증상
가장 대표적 혈액학적 증상으로는 빈혈이다. 빈혈이란 적혈구수가 정상이하로 감소한 상태인데, 암환자에서는 적혈구의 생산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와 소실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빈혈이 심할수록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안면이 창백하게 보인다. 신체 어느 부분에서나 출혈할 수 있겠으나 소화관을 통한 예가 가장 많다. 이는 혈관손상이나 응고력 장애로 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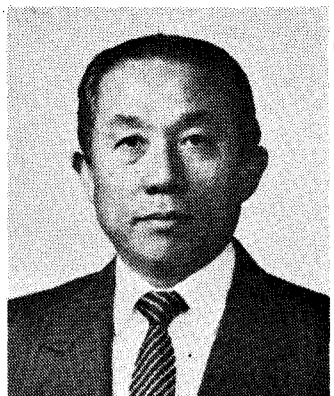
5. 정신증상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거의 대부분 절망감, 고독감 그리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분

(그림). 폐쇄성 황달이 진행되면 심한 소양증(가려움증)을 호소하게 된다.

황달은 기존 간경화의 간세포기능 저하와 간암의 압박으로 인한 것의 복합형이 된다. 식욕부진이나 변비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며, 간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는 이미 말기증상을 시사한다. 호흡곤란은 심한 복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은 횡경막을 누름으로 폐활량이 적어졌거나 암조직이 폐실질에 침윤되었기 때문이다.

간암(혹)은 상하 어디로든지 팽창한다. 단단하고 거친 표면의 혹이 주로 우상복부에 만져지지만 혹이 간좌엽에 생겼을 때는 명치 밑에 만져진다.

때로는 여러개의 혹이 만져지기도 한다. 암종은 대개 심하지 않으나 때로는 참을수 없을



朴承國 <啓明醫大> 內科教授

한다. 폐로 전이되었을 때는 늑막염 증상으로 시작하고, 폐동맥을 막았을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게 한다. 늑골(갈비뼈)이나 척추에 전이되었을 때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뇌로 전이가 되면 두통이나 정신이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피로·복부팽만·체중감소·微熱을 호소 40代 이후 發生하여 통증·압통을 동반

이에 생기느냐에 따라 그 증상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모든 암들이 나타내는 증상의 대부분은 공통된 것들이다. 심지어는 암이 아닌 다른 질병들의 증상과도 공통된 것이 많다.

1. 혹(암종괴: 癌腫塊)증상
양성 혹도 있지만 대체로 암을 혹이라 속칭하고 있다. 혹은 부피를 가졌으며, 그 부피는 시간흐름에 따라 팽창하는 것이다. 혹이 팽창함에 따라 세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 1) 정상조직을 잠식-말살하여 원래조직의 정상기능을 마비시키며,
- 2) 정상조직을 압박하여 원래조직의 정상기능을 마비시키며,
- 3) 암조직 주위의 신경섬유를 압박-신장시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2. 방종양성(傍腫瘍性)증상
암세포의 잘못된 유전정보에 의하여 홀몬과 같은 어떤 물질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므로 발생하는 증상들이 드물게 있을 수 있다. 분비되는 물질에 따라 고칼슘증 저혈당증 고지혈증 혹은 감산성항진증에 해당하는 각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체중감소 및 열
신진대사의 변화로 인한 결과들이다. 암환자의 대부분은 입맛이나 냄새의 변화, 심리변화 등으로 열량섭취가 줄어든 반면, 암종자체의 열량소모가 증가되므로 체중감소란 증상으로 나타난다. 체중감소의 대부

분은 그 부피가 줄어들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간경화환자에서 간이 만져질 때에는 암종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하다.

간암 자체로도 복수는 생길수 있지만 대개는 이미 갖고 있던 간경화증이 심해져서 생겼을 경우가 많다. 간암으로 생긴 복수내에는 암세포가 포함되어 있고 흔히 육안상 핏기(血性)를 띄운다.

대체로 혈성복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표재성 간암이 터졌을 때는 급성복통을 일으키며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간암에서의 출혈은 흔히 말기증상으로써 토혈이나 혈변으로 호소되는 식도정맥류 출혈이나

만 큼이다. 간경화가 진행될수록 간은 그 부피가 줄어들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간경화환자에서 간이 만져질 때에는 암종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하다.

간암 자체로도 복수는 생길수 있지만 대개는 이미 갖고 있던 간경화증이 심해져서 생겼을 경우가 많다. 간암으로 생긴 복수내에는 암세포가 포함되어 있고 흔히 육안상 핏기(血性)를 띄운다.

대체로 혈성복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표재성 간암이 터졌을 때는 급성복통을 일으키며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간암에서의 출혈은 흔히 말기증상으로써 토혈이나 혈변으로 호소되는 식도정맥류 출혈이나

시작이 분명치 않은 피로감, 복부팽만감, 체중감소, 미열 등을 호소한다. 통증은 우상복부나 심화부(명치)에 느껴지지만 대개 심하지는 않고 지속적이



다. 암종이 간실질내에 있을 때는 아픈 것을 모르지만, 간 표면에 위치할 수록 통증이 뚜렷해지고, 횡경막을 침범했을 때는 오른쪽 어깨나 주먹뼈(견갑골)쪽으로 통증이 전사된다. 암이 간장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간담도를 압박할 때면 담즙 배설이 차단되기 때문에 황달(폐쇄성)이 눈에서부터 띄게 되며 차츰 피부에서도 보이게 된다

거의 쇼-을 동반한다. 대개 간경화를 동반한데서 더욱 자주 나타나며, 간암이 간문맥을 침범하므로 발생한 식도정맥류출혈은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복강내 출혈도 드물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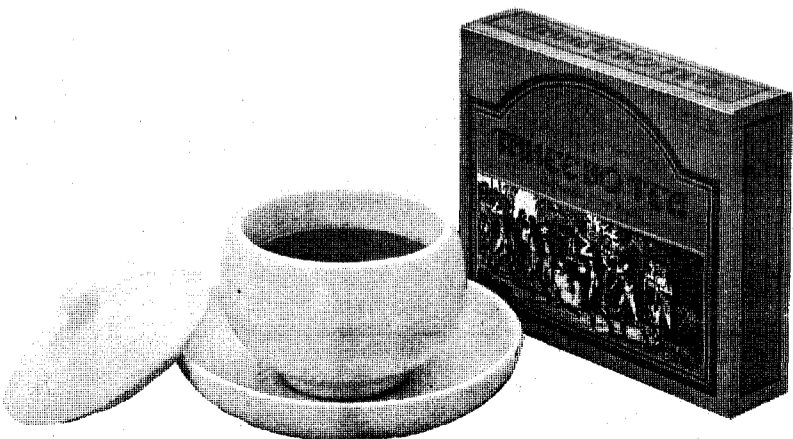
암 전이증상
오른쪽 몸 밑에 알맹이가 만져지면 임파절 전이소견일수 있다. 조직검사로 확인되어야

天然의生命力을 간직한 奇跡의 藥木 - 타히보

TAHEEBO

타히보를 마시면!

- * 각종 성인병 예방에...
- * 피부미용 및 몸의 밸런스 유지에...
- * 음주(숙취) 후 피로회복에...
- * 수험생들의 활력소로...



TAHEEBO TEA의 성분 분석표

비타민류(100g중)		미네랄류	
단백질 4.1%	비타민 B ₆ 61μg	칼슘 42.00ppm	알루미늄 118ppm
지방 0.9%	비타민 B ₁₂ 0.25μg	마그네슘 81.1mg	철 19.1mg
섬유질 30.7%	엽산 7μg	인 38.3mg	바륨 132ppm
회분 10.9%	나이아신 0.95mg	나트륨 3.32%	동 5.13ppm
당질 44.3%	이노시톨 106mg	칼륨 256mg	망간 67.3ppm
수분 9.1%	판토텐산 0.14mg	크롬 0.5ppm	아연 6.15ppm
		니켈 0.28ppm	바나듐 0.09ppm

주식회사 배문교역

서울(02)356-2152~3 352-6356~7

총판 및 전국대리점 모집